

여름, 박지성처럼 많이 뛰고...엄원상, 손흥민처럼 빨랐다



광주FC 여름

2020 K리그 활동량·스프린트 분석

2020시즌 K리그에서 누가 가장 많이, 빠르게 뛰었을까? 전북현대의 손준호가 경기당 평균 1만1088m 달리며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였고, 울산현대의 김인성은 경기당 평균 14.9회의 스프린트 (0.6초 이상 지속 25.2km이상 유지) 횟수를 장식하며 1위에 올랐다. 김인성은 경기당 평균 스프린트 거리에서도 229.94m로 1위를 차지했다.

광주FC의 '주장' 여름은 1만783m를 달려 뛴거리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엄살라' 엄원상은 209.74m의 기록으로 평균 스프린트 2위를 차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0일 EPTS(Electronic Performance Tracking System·전자 장비를 통한 선수 활동량 측정 시스템)에 기반을 둔 올 시즌 선수들의 활동량 데이터를 공개했다.

연맹은 지난 시즌부터 웨어러블 EPTS 기입 '핏투게더'의 후원으로 선수들의 뛴거리와 속도 등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K리그1에서는 광주를 비롯한 8개 구단(전북, 울산, 상주, 서울, 성남, 인천, 포항), K리그2에서는 7개 구단(제주, 수원FC, 대전, 안산, 부천, 안양, 충남아산) 등 총 15개 구단이 '핏투게더'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연맹은 '핏투게더' 장비를 사용하는 15개 구단 소속 선수 중 올 시즌 10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뛴 거리 ▲스프린트 횟수 ▲스프린트 거리 ▲HSR(High Speed Running) 거리의 경기당 평균값을 계산했다.

올 시즌 K리그1 MVP 손준호는 활동량에서도 1위였다.

25경기에 나온 손준호는 경기당 평균 1만1088m를 뛰며 2득점 5도움을 올렸다.

한석중(수원·1만810m)과 여름(1만783m)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K리그2 7개 구단 선수 중에서는 김영욱(제주)이 1만910m로 가장 많이 뛰었다. 박민규(수원FC·1만696m), 바비오(부천·1만470m)가 뒤를 이었다.

김인성은 경기당 평균 스프린트 횟수, 스프린트 거리 모두 1위

활동량

전북 손준호 경기당 평균 1만1088m 1위

광주FC 여름 1만783m 달려 뛴거리 3위

스프린트 거리

울산 김인성 경기당 평균 229.94m 1위

광주FC 엄원상 209.74m 짝어 2위 차지

를 기록했다.

김인성은 경기당 평균 14.9회의 스프린트 횟수를 자랑했고, 안태현(상주)과 한교원(전북)이 각각 13.8회와 13.2회로 2·3위에 올랐다.

김인성은 경기당 평균 스프린트 거리에서는 229.94m를 찍었다. 2·3위는 광주 금호고 동문이 차지했다. 엄원상(광주)이 209.74m, 나상호(성남)가 202.63m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K리그2에서는 이은범(충남아산)이 스프린트 횟수 15.6회·거리 245.93m로 '2관왕'이 됐다.

스프린트 횟수 2위는 아코스티(안양·14.3회)가 장식했고 김승섭(대전)·바비오(부천)·박요한(안양)이 13.9회로 공동 3위다. 스프린트 거리는 박민서(충남아산)가 230.67m로 2위, 박요한이 222.44m로 3위다.

김인성은 19.8kmh 이상의 속력으로 뛴 거리를 의미하는 HSR 거리에서도 평균 794.5m로 K리그 1위가 됐다.

746.25m를 뛴 강상우(포항)가 2위, 745.9m의 안태현(상주)이 3위였다.

K리그2에서는 박요한이 HSR 거리 934.94m로 1위, 박민서가 827.92m로 2위, 최건주(안산)가 786.4m로 3위를 찍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엄원상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 경기장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H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 대 바스체하르(터키) 경기를 앞두고 양 팀의 선수들이 무릎을 꿇은 채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당초 전날로 예정됐던 이 경기는 대기심의 인종차별 발언에 양측 선수들이 경기를 거부하며 이날로 미뤄졌다. 경기는 PSG가 5-1로 이겼다.

/연합뉴스

NC 양의지 ‘포수 황금장갑’ 3년 연속 수상 유력

오늘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2020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1일 오후 3시 40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10개의 ‘황금장갑’을 놓고 87명이 경쟁을 벌이는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후보는 역시 양의지다. 양의지는 올 시즌 NC의 첫 통합 우승을 이끌며 한국시리즈 MVP를 차지했고, 각종 시상식에서 최고의 선수로 호명되면서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양의지는 화제의 후보다. 지난해 골든글러브 투표에서도 득표를 91.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양의지의 이름이 다시 불리면 3년 연속 수상과 포수 부문 최다 수상 단독 2위 기록을 세우게 된다.

양의지는 앞서 5개의 골든글러브를 수집하면서 이만수·강민호와 포수 부문 최다 수상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포수 부문 통산 최다 기록은 7차례 수상에 성공한 김동수가 가지고 있다.

올해 후보 중 골든글러브 최다 수상자는 롯데의 이대호와 SK 최정으로, 두 사람은 앞서 6차례 골든글러브 시상대에 섰다.

이번에도 다시 시상대에 오르면 이들은 김동수·이병규와 함께 통산 최다 수상 공동 3위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역대 최다 수상자는 이승엽으로 10개의 골든글러브를 가지고 있다.

키움의 김하성과 이정후도 3년 연속 수상에 도전한다. 지난해 325표를 얻으며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 영예를 안은 김하성은 이번 시즌 유격수로는 유일하게 ‘30홈런·100타점’을 달성하며,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김하성이 수상에 성공하면 김재박(4회), 강정호만 이름을 올린 유격수 부문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지난해 외야수 부문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이정후(90.8%)도 올 시즌 최다 2루타 신기록(49개)을 세우며 어필했다. 만약 이정후가 올해도 수상자가 되면 장효조, 박재홍, 이병규에 이어 역대 외야수 중 4번째로 데뷔 4년 차에 골든글러브 3회 수상이라는 기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최다 득표, 최고 득표율 기록 경신 여부도 관심

사다. 2007년 외야수 부문 수상자인 두산 이종욱은 총 350표를 획득하면서, 역대 골든글러브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이 기록으로 이종욱은 지난해까지 12년간 최다 득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고 득표율 기록도 17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2002년 삼성 마해영(지명타자)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99.3%의 지지를 얻으면서 골든글러브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김하성이 93.7%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장식했다.

단 2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경우도 있었다.

이번 시즌에는 3루수, 외야수, 지명타자 자리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허경민 ‘7년 최대 85억원’ 두산에 잔류

이번 겨울 FA 최대어로 꼽힌 내야수 허경민(30)이 ‘7년 최대 85억원’ 대박을 터트리며 두산에 잔류한다. 두산은 10일 “허경민과 FA 계약을 마쳤다. 계약 조건은 계약기간 4년에 계약금 25억원, 연봉 40억원 등 총액 65억원이다”며 “또 4년 계약이 끝난 뒤에는 3년 20억원의 선수 옵션 조항이 있다”고 발표했다.

두산은 ‘4+3년’이라는 흔치 않은 계약으로 허경

민을 붙잡았다. 2024년까지 4년간 총액 65억원을 받는 허경민이 4년 계약이 끝난 뒤 팀 잔류를 선택하면 3년 20억원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

허경민은 “프로 입단 후 베이스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뛰었다. 영광스러운 계약 조건을 제시해 준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마냥 기쁘기보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매 경기 내 자신을 재확인하며 뛰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독일 4·스페인 4·영국 3·이탈리아 3팀 16강

UEFA 챔스, 14일 대진 추첨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강호’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에 합류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0일 열린 2020-2021 UCL 조별리그 B조 최종 6차전 홈 경기에서 카림 벤제마의 연속 헤딩골로 뮌헨글라트바흐(독일)를 2-0으로 제압했다. 5차전에서 사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에 0-2로 져 3위로 밀렸던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3을 획득, 1위(승점 10)로 B조를 통과했다.

뮌헨글라트바흐는 이날 인터 밀란(이탈리아)과 0-0으로 비긴 사흐타르와 승점 8로 동률을 이뤘으나 맞대결 성적에서 앞서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A조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원정에서 2-0으로 승리,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독일·승점 16)에 이어 A조 2위(승점 9)로 16강에 진출했다.

D조에서는 아탈란타(이탈리아)가 아약스(네덜란드)를 1-0으로 따돌려 리버풀(잉글랜드·승점 13)에 이어 2위(승점 11)로 16강행 막차를 탔다.

이미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 포르투(포르투갈)가 16강에 오른 C조에선 두 팀이 1, 2위에 올랐다.

맨시티는 최종전에서 마르세유를 3-0으로 눌러

승점 16을 쌓았고, 포르투는 올림피아코스(그리스)를 2-0으로 물리쳐 승점 13을 얻었다.

전날 대기심의 인종차별적 발언 때문에 전반 13분 만에 중단됐던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바스체하르(터키)의 H조 6차전은 이날 재경기가 열렸다. 이미 16강 한자리를 쟁한 가운데 나선 PSG가 네이마르의 3골, 킬리안 음바페의 2골을 앞세워 5-1로 완승, 조 1위(승점 12)를 차지했다.

전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잡은 황희찬의 소속팀 라이프치히(독일)가 PSG와 승점·맞대결 성적에 같았으나 원정 득점에서 밀려 2위에 자리했다.

PSG의 음바페는 21세 355일로 역대 최연소 UCL 통산 20골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22세 266일이었다.

이날 조별리그 일정이 마무리되며 이번 시즌 UCL 16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뮌헨을 필두로 도르트문트·라이프치히·뮌헨글라트바흐 등 독일 4팀이 모두 조별리그를 통과했고, 바르셀로나·레알 마드리드·아틀레티코 마드리드·세비야 등 스페인 클럽들도 모두 16강에 올랐다.

리버풀·첼시·맨체스터 시티(이상 잉글랜드), 유벤투스·라치오·아탈란타(이상 이탈리아), PSG와 포르투도 단판 승부에서 정상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UCL 16강전과 유로파리그 32강전은 내년 2월 열리며, 대진은 이날 14일 결정된다. /연합뉴스